백 보좌 심판의 실제상황

(계20:11~15)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백 보좌 심판의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실제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들에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고, 또 간접적으로 나와 관계가 되는 실제 상황들이지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에 있어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강한 실제상황이 되고, 그래서 약한 실제 상황들은 실제 상황인데도 내 관심 밖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큰 실제 상황에 마음을 다 뺏기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very very important person)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과의 만남, 관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자, 실제상황의 적자생존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돈이 없어서 갖고 싶은 명품 백 하나 사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될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이 명품 백을 사서 쓴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3 값에 줄 테니까 사라!' 그러면, 내 집이 불타고 있는 상황도 실제상황이고 한 달밖에 안 된 새것과 똑같은 게 1/3 값에 내 앞에 놓인 것도 실제상황이지만, 이때 명품 백을 사겠다고 지갑 찾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서 잿더미가 되게 생겼는데~' 다 이러겠죠.
이런 게 바로 실제상황의 적자생존의 원리라는 겁니다.
또,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늘 속이 상해서 아이와 싸우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가출을 해서 100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공부 못하는 것도 실제상황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티끌같이 여겨지고,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 달라.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실제상황 속에서 공부 못하는 실제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남편이 월급도 좀 적고 사람이 못나고 그래 보인다고,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이제 실제상황은 어떻게 변합니까?
돈 못 벌고 능력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다시 살아만 나 다오, 의식이 돌아와서 깨나기만 하면 정말 평생 상전처럼 모시겠다.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상황의 적자생존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묘한 실제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제일 왕초 실제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래서 차압당하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경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이가 대학 입학에 실패했다, 이것도 큰 문제일 수가 있죠. 또, 중병에 걸렸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 하늘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던 부부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감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죠.
뿐입니까? 중고등학교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젊은 나이에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정말 큰일은 뭡니까? 자식이 앞서 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은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제상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후에 일어나게 되는 백(白)보좌 심판이라는 겁니다.
백 보좌 심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흰색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백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실제상황이 되면 이 땅에서 나보다 먼저 자식이 죽은 상황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먼저 죽은 자식에게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었던 자식이 부활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죽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심판의 실제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상황이 될 최후의 심판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실제상황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있다면 이 세상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실제상황으로 주어질 심판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땅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실제상황 같은 것들은 너끈히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실제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판을 하시게 될 때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집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태양계 은하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없어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없어지면서 재림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태초 이래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붙이고 전전긍긍했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제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흰색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그 보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지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앉아계신 보좌는 그분이 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네 생물이 주

야로 거룩하심을 그분의 좋으심과 매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앉아있고, 유리바다가 보좌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데, 아니 더럽게 지옥으로 들어갈 심판을 받게 될 죄인들까지도 그 보좌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보좌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므로 이건 주님께서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놓으신 보좌에요.
자, 그러면 이 보좌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보좌 앞에서는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심판을 받습니다.
한사람씩 심판을 받는데, 시간이라는 게 없어진 그런 세계니까 그 심판이라는 게 한사람 심판받는 데에 10분씩 걸린다거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일순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부부단위로 받는 것도 가족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교회 단위도 민족단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도 각자, 목사님과 사모님도 각자, 교인들도 각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판결될지 모르는 이 심판이 나에 대한 판결과 김 집사님, 이 장로님, 목사님에 대한 판결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날까요?
판결을 하는데 두 가지 책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책에 기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후에 심판을 받느냐?
이 뜻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자, 멸망에 이르지 않는 심판, 멸망에 이르는 심판.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다 똑같은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의해서 심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책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심판의 실제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책은 계시록의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보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 지워나가는 그런 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은 계시록 13장 17장 21장 등에서 계속 '어린양의 생명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누가 지워질 것이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의 실제상황을 지금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적인 차이인데, 그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책은 기쁨과 연결이 돼있습니다.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기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양을 통해서 하늘에서만 기쁨을 얻은 자들이 어린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양의 십자가를 도외시함으로써,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 죽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일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데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어떡하면? 지면.
이기는 자는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지는 자는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는 것, 이 세상에 지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야 기쁘다는 것이고, 이게 이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고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양을 통해서 하늘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 이거에요.
뭐가 문제라서 생명책에서 지워져버렸느냐 이겁니다.
또 무얼 잘했기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었느냐 이겁니다.
실제상황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지금 돈이 안 벌려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슬프고 근심이 많아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므로 돈이 벌리면 기쁠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돈이 안 벌리는 상황도 실제상황이고 또 하나의 실제상황이 있습니다.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사건은 언제어디서나 항상 현재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구 위에서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어떠한 실제상황을 당하든지, 항상 현실의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실제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실제상황보다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실제상황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티끌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그 지구에서도 티끌 같은 부분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티끌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이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실제상황을 버리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 모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게 실제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건 자식문제가 생기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보다 가장 큰 실제상황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걸 붙잡을 때, 이 세상에서 실제 상황으로 주어지고 있는 땅 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로 딸

려올라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제 상황보다도 우선적인 실제상황으로 붙잡아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문제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러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부르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기뻐지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십자가를 실제 상황으로 붙잡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세상 문제를 먼저 실제 상황으로 붙듦으로써 세상일로부터 기쁨을 캐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기쁨이 근본적인 속성인 생명에 관한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아닌 펼쳐져 있는 책은 뭡니까?
본문에 12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이렇게 기록돼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지워졌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 못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것을 확정하는 심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행위를 심판하는 책이 또 있느냐 이거에요.
또, 어떤 의문이 생기나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심판 때에는 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선생님들이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그럴 경우, 어디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시험문제가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행위 심판이 따라오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기쁨의 이유를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건데, 어린양을 실제상황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하늘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서 기쁨을 캐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 기쁨의 이유가 돈이나 건강, 자녀의 성공,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다, 라고 기쁨의 이유를 다양하게 믿을 때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행위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쁨의 이유로 삼느냐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으로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기쁨의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다르고, 자녀가 기쁨의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라고 믿는 사람의 행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지워졌는가를 증거 하는 증거자료들입니다.
'너의 행위라는 열매들을 보면 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는 데에만 몰두했느냐, 네가 믿음의 이유를 돈이라는 것에 붙잡아 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네가 왜 그렇게 학원과 조기유학 이런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았었냐?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행위들을 다 심판하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는 왜 심판하는 겁니까?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달려갈 길, 여기서 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율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에 내 행위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행위가 심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고,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깁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질 수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행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고, 이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가 하면, 먼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적혀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태승철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에다가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

어야 될 행위들을 다 적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행위는 그것과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룬 일들이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볼 때, 많이 맞은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맞춰질 수가 있습니까?
어린양 십자가에 실제상황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어린양 십자가를 생활화함의 농도가 짙으면 짙어질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지는 기쁨도 커집니다.
이 땅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소원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소원하고 내 소원에서 나온 의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정도에 따라서.
십자가 생활화의 정도에 따라서 하늘로 기뻐지는 기쁨이 커지고 그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는 내 기쁨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사도바울의 달려갈 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사도바울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면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 붙잡기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한 Daily Baptism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더라도 계속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거에요.
십자가 생활화가 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이 생기고, 기쁨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천년왕국이 시작될 수 있는 정혼의 기간이 끝나고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혼인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했던 그 글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땅에서 적혀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린다.
하늘로 기뻐하는 기쁨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행동들을 적어놓으신 것과 점점 맞아떨어지면서 생이 진행되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상황으로 믿고 살았던 십자가 생활화의 정도에 따라서 기쁨이 커지고, 기쁨이 커진 것만큼 땅에서 이룬 달려갈 길이 정확하게 맞혀지고 많이 이룰수록 상급과 면류관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맞춰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돈이 안 벌리고 그래서 걱정스러워도 이 실제 상황보다는 어린양 십자가의 실제 상황이 더 큰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로 기쁜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돈 문제, 자식 문제 앞에 떡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책에 다 기록이 되는데, 하늘에서 기록하셨던 내용들과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내 행위가 판정이 되는 겁니다.
농도 70%, 농도 80%, 농도 20%,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농도 99%, 와~ 사도바울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의 행위로 농도를 측정할 테니까.
그리고 죄악 된 농도들은 십자가를 붙들 때 다 용서가 되는 거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의 행위의 책에 적어놓으신 것들을 얼마나 적중시키느냐를 목표 삼아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잘 안 되는 사업을 흑자 상황으로 바꾼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행위의 책에 적어놓으신 대로 맞춰서 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
자식이 문제일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식이 문제인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행위의 책에 적어놓으신 대로 맞춰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의 상황이 있고 사업의 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먼저 죽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자식 문제나 사업 문제로 기뻐하려고 하면 딸려가는 것이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기쁜 다음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함께 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 재미로 사는 겁니다, 이 재미로.
사업 잘되는 재미, 자식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사업과의 관계에서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그 뜻대로 맞추느냐, 몇 %나 맞추느냐,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황이 우선적인 실제 상황이고 이것이 실제상황이 될 때 심판의 실제상황에 맞추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신나고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의욕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어떡하든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실제 상황들 앞에서 어린양 되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선적인 실제상황이 되는 이 한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